

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오로지 개츠비의 집 현관을 들락날락 거리던 경찰들과 사진사들 그리고 신문기자들의 끊임없는 행렬들로 그날과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기억한다. 정문에 줄이 쳐지고, 경찰 한 명이 호기심 어린 군중들을 차단했지만 이내 작은 꼬마들은 우리 집 앞뜰을 통과해 그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래서 수영장 근처에는 노상 입을 벌린 꼬마들이 모여 들었다. 그날 오후 아마도 형사인 듯한 단호한 태도의 한 남자가 월슨의 시체 위로 몸을 굽히며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연히도 그 권위 있어 보이는 어조 때문에 다음 날 신문 기자들이 그것을 머리기사로 정하는 단초가 되었다.

대부분의 신문 기사들은 악몽과도 같았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기괴하고 추정적이며 광적이었다. 사체 검시(檢屍)에서의 마이클리스의 증언으로 월슨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는 불원간 이 사건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선정적인 흥밋거리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캐서린은, 뭔가 할 말이 있을 법한 그녀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이 일에 관해서 놀랄 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수정해 그린

눈썹 아래 단호한 두 눈으로 검사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언니는 개츠비를 만난 적이 결코 없고, 언니와 형부는 진짜로 행복했었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며, 마치 그러한 암시 자체를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래서 월슨은 '너무나 큰 슬픔을 못 이겨 미쳐버린' 남자로 격하되었고, 그렇게 사건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사건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었다. 나는 혼자서 개츠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웨스트에그 마을에 전화해서 이 비극에 대해 알린 순간부터, 그에 대한 온갖 억측과 모든 실질적인 질문들이 내게로 향했다. 처음에 나는 무척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가 자신의 집에 누운 채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말도 하지 않고 몇 시간째 누워 있기만 하자,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관심이란, 어떤 사람이든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강렬하고 인간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를 발견하고 난 뒤 반 시간쯤 지나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본능적으로 테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일찍 그녀와 톰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아예 가방까지 싸서 나갔다고 했다.

“주소를 남겨 놓았나요?”

“아뇨.”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되는 곳이 없나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연락이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다. 나는 그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이런 말로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데려오겠어요, 개츠비 씨. 걱정하지 말아요. 그저 날 믿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데려올 테니…….”

전화번호부에서는 마이어 올프십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교환을 통해 전화를 걸었지만, 내가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것이 이미 5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연결해 주시겠어요?”

“벌써 세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쪽에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나는 하는 수 없이 응접실로 돌아왔고, 순간적으로 방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조문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지 공격적인 일로 방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트를 젖히고 놀란 눈으로 개츠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그의 향의가 이어졌다.

“이것 봐요, 친구, 당신이 날 위해 누군가를 데려와 주시오. 좀 더 애를 써 봐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것을 뿌리

치고 위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그의 책상 서랍을 급히 뒤져 보았다. 그는 한 번도 명확하게 자신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덴 코디의 사진이, 이제 잊혀져 버린 폭군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그가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사의 편에 울프심에게 보내는 편지를 뉴욕으로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개츠비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과 다음 기차를 타고 내려와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건 정오가 지나기 전에 데이지가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은 백락의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지의 전화도 없었고, 울프심 씨도 오지 않았다. 더 많은 경찰들과 더 많은 사진사들과 더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을 뿐이었다. 집사가 가져온 울프심의 답장을 받았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개츠비와 내가 그들에게 반항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캐러웨이 씨!

이번 일은 내 생애에 있어 가장 끔찍한 충격이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남자가 저지른 미친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나는 아주 중요한 사업 관계인 지금은 그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 또한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도움 일이 있다면 에드거를 통해 서신으로 알려 주십시오.

시오. 너무나 황당한 비극에 저로서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진심을 담아,
메이어 윌프십 드깁.

그리고 급하게 휘갈겨 쓴 두 줄의 추신이 뒤따랐다.

장례식 절차 등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고, 시카고에서 온 장거리 전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침내 데이지한테서 온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자, 아주 가늘고 감이 멀게 느껴지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슬라이글입니다…….”

“네?”

그 이름이 너무 생소했다.

“전화 상태가 엇 같아요, 안 그래요? 제 전보를 받으셨나요?”

“전보라니요? 어떤 전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파크라는 젊은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다.

“그가 카운터 너머로 채권(또 다른 로스스타인 이야기이다. 개츠비의 모델이기도 한 에드워드 풀러와 동업자 맥기의 사기사건으로 부도증권과 도난증권

을 팔다 적발된 사건이다. 총 4번의 재판이 열렸는데, 마지막 재판 당시 이들이 로스스타인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후 그가 처음부터 배후에 있었음이 알려진다. 개츠비와 울프심의 관계는 아마도 로스스타인과 에드워드 폴러 대위의 관계에서 유래한다고 여겨진다.)을 넘겨주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들은 바로 5분 전에 뉴욕으로부터 채권 번호가 실린 회람장을 받은 모양입니다. 혹시 그 일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것은 없어요? 이런 지방 촌구석에는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봐요.”

나는 황급히 상대방의 말을 끊었다.

“이봐요, 나는 개츠비 씨가 아닙니다. 개츠비 씨는 죽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뭐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선이 끊어진 것처럼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미네소타 주의 한 마을에서 헨리 C. 개츠라는 서명이 담긴 전보가 도착한 것이 3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내용은 발송인이 즉시 출발할 것이니,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장례식을 연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개츠비의 부친이었다. 근엄한 인상의 노인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무력해 보였으며 따뜻한 9월인데도 싸구려 울스터(따가 달린 품이 넓고 긴 외투.) 코트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격양된 듯 두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내가 그의 가방과 우산을 받아들자 그가 술이 적은 회백색 수염을 계속해서

쏟아내렸기 때문에 그의 외투를 벗기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지경이어서 나는 그를 음약실로 안내해 그곳에 앉힌 뒤,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먹으려 하지 않았고,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우유를 옆질러 버렸다.

“시카고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소.”

그가 말했다.

“시카고 신문에 사고 내용이 자세히 실렸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출발한 거요.”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초점 없는 그의 두 눈이 끊임없이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미치광이였어요. 분명 미치광이였음에 틀림없어요.”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내가 권했다.

“난 아무것도 원치 않소. 그런데 성함이…….”

“캐러웨이입니다.”

“하여간 난 이제 괜찮소. 그런데 지미는 어디 있소?”

나는 아들이 누워 있는 응접실로 그를 안내한 뒤,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왔다. 몇몇 어린 소년들이 계단을 올라오며 복도를 구경하고 있었다. 내가 방금 도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자 그들은 마지못해 그곳을 떠났다.

잠시 후 개츠 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두 눈에서는 이따금씩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죽음이 더 이상 황망한 놀라움의 성질일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도달해 있었고, 처음으로 집 안을

둘러보던 그는 천장이 높은 화려한 복도가 엄청나게 커다란 방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슬픔에 이내 경외감과 자부심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위층의 침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다. 그가 외투와 조끼를 벗는 동안 나는 모든 계획을 그가 도착할 때까지로 연기해 놓았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지 몰라서요, 개츠비 씨…….”

“내 이름은 개츠요.”

“…… 개츠 씨. 어쩌면 아드님의 시신을 서부로 운구해가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미는 어릴 때부터 동부를 더 좋아했소. 그 애는 동부에 제 입지를 굳혔거든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친구인가요, 선생?”

“네, 친한 친구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였죠. 잘 아시겠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으니까요. 여기가요.”

그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듯한 인상적인 동작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애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애는 큰 인물이 되었을 거요. 제임스 J. 힐(James J. Hill(1838~1916): 미국의 저명한 자본가이자 대륙횡단 철도를 부설한 철도사업가.)과 같은 인물. 분명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했을 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거북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수가 놓여진 침대 덮개를 어루만지다, 그것을 벗겨내려 몇 번 더듬거린 뒤, 그대로 그 위에 뻗뻗하게 누워버렸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어디선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놀란 듯한 목소리로 내가 누구지를 먼저 물었다.

“저는 캐러웨이입니다.”

“오!”

그의 목소리가 안심하는 듯했다.

“전 클립스프링어입니다.”

또 다른 친구가 개츠비의 무덤으로 찾아올 거라는 약속처럼 느껴져서 나도 마음이 놓였다. 신문에 부고를 실어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게만 직접 전화로 알리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올 만한 사람을 찾아 내기란 쉽지 않았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내가 말했다.

“3시예요, 여기 집에서 차를 겁니다. 혹시 오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당신이 연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요.”

그가 급하게 말했다.

“비록 그들 중 누구를 만나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나면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그의 말투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물론 당신은 내일 오시겠죠?”

“글쎄요, 가능하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린 용건은…….”

“잠깐만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노력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지금 그리니치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가 내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일종의 소풍 같은 종류의 행사인데…… 물론 저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흥!’ 하는 소리를 내뿜었고, 그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바뀌어 있었고, 급하게 자기의 용건을 털어놓았다.

“제가 전화를 건 이유는, 그곳에 남겨놓고 온, 한 켈레의 신발 때문입니다. 혹시 폐가 되지 않으면, 집사를 시켜 그 신발을 좀 보내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그게, 테니스화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 주소는 받는 이가 B. F.…….”

나는 나머지 이름과 주소를 듣지 않은 채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렸다.

그 후 나는 개츠비에게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 내 전화를 받은 한 신사는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 어쨌든 그건 모두 내 실수였다. 그는 개츠비의 술을 얻어 마시고 그 술기운으로 개츠비를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꼬던 작자들 중 하나였으니, 그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걸 미리 알아야 했었다.

장례식 날 아침, 나는 메이어 울프심을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를 만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가르쳐준 대로 밀고 들어간 문에는 ‘만자(門)

字) 지주 회사' (근자가 쓰였다고 해서 유대인인 울프심이 파시스트라는 말은 아니다. 히틀러가 만자를 쓴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일이고, 이 시대의 스와스티카(卍)는 단순히 장식적인 장치였다.)라고 붙어 있었고, 처음에는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몇 차례 '계십니까?' 하고 외치자, 칸막이 방 뒤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더니 예쁘장한 유대인 아가씨가 안쪽 문에서 나와 적개심이 담긴 검은 눈으로 나를 꼼꼼히 살피보았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울프심 씨는 시카고에 가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듯, 누군가가 안에서 단조로운 휘파람으로 '로사리오' (1898년 로버트 캐머론 작사, 에셀버트 네빈이 작곡한 노래. 1920년대 초 리바이벌되어 크게 유행함.)를 부르기 시작했다.

“캐리웨이라는 사람이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시카고에 계시는 분을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바로 그 순간 다른 문의 안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프심임에 분명한 목소리가 '스텔라' 하고 외쳤다.

“책상 위에 이름을 남겨놓으세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럼 그분이 돌아오시면 전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전 그가 저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내게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분개한 듯 엉덩이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밀고 들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태도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내가 시카고에 있다고 말하면, 그분은 시카고에 있는 거예요.”

나는 개츠비의 이름을 언급했다.

“오, 이런!”

그녀는 다시 나를 훑어보았다.

“잠깐만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녀가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곧 메이어 울프심이 엄숙한 표정으로 문 앞에 나타나더니 두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이끈 뒤,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라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게 시가를 권했다.

“내가 처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군요. 그는 막 군대를 전역한 젊은 소령이었고, 전쟁 때 받은 훈장들을 잔뜩 달고 있더군요. 형편이 아주 곤란해서 줄곧 군복만 입고 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번듯한 의복을 구입할 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43번가에 있는 와인브레너의 당구장으로 찾아와 일자리가 있는지 물었을 때였죠. 그는 꼬박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점심을 드시다.’ 라고 내가 말했죠. 그는 30분 만에 자그마치 4달러어치의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럼 선생께서 그에게 사업 자리를 알선하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 그랬지요! 내가 그를 키워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를, 방금 시궁창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를 키워낸 겁니다. 그가 오그스퍼드 출신이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그가 쓸모가 많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나는 그를 전국 재향군인회에 들어가게 했고, 그가 거기서 항상 높은 위치에 있게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올버니에서 내 의뢰인을 위해 소소한 일들을 처리해 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 돈독한 우정을 쌓았지요…….”

그는 두 개의 알뿌리 같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우린 ‘항상 함께’였어요.”

나는 그 ‘협력’ 관계가 1919년의 월드 시리즈의 거래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 있을 장례식에 꼭 참석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글쎄, 그럼 오십시오.”

그의 콧구멍의 털이 살짝 떨렸고,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휘말려들 일이 없습니다. 모두 끝난 일입니다.”

“사람이 피살된 사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사정

이 달랐어요. 만일 친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했지요. 그걸 감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 최후의 순간까지 말입니다.”

나는 그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대학을 나왔소?”

그가 갑자기 물었다.

잠깐 동안 나는 그가 ‘거래’를 제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할 뿐이었다.

“죽은 뒤가 아닌 살아 있는 동안 상대에게 우리의 우정을 보여주는 법을 배웁시다.”

그가 말했다.

“그런 뒤의 내 규칙은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내가 그의 사무실을 떠날 즈음, 하늘은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고 웨스트에그에 돌아왔을 때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서 나는 옆집으로 갔고, 흥분한 듯 복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개츠 씨를 발견했다. 아들과 아들의 소유물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끊임없이 커져서 이제는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지미가 내게 이 사진을 보내왔소.”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이걸 좀 보시오.”

그것은 이 저택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서리가 꺾이고 하도 손때를 타서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진의 구석구석을 상세하게 짚어나가며 열심히 설명했다.

“여길 좀 보시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내 두 눈에서 감탄의 빛을 찾으려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진을 너무 자주 보여줘서, 그에게는 실제 집보다 그 사진이 더 실물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다.

“지미가 내게 이 사진을 보냈소. 아주 잘 찍은 사진이라 생각해요. 사진이 아주 잘 나왔단 말씀이야.”

“잘 나왔네요. 아드님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2년 전에 나를 보러 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주었어요. 물론 그 녀석이 집을 나갔을 때 우리 부부는 단단히 화가 났었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소. 그 애는 자신의 앞날에 엄청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요. 성공을 거둔 이후로, 지미는 내게 정말 잘해 주었소.”

그는 사진을 치우는 것이 못내 아쉬운지 한참 동안 그대로 내 눈앞에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지갑에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호펠롱 캐시디<클레런스 E. 멀포드(1883~1956)가 1910년에 집필한 작품으로 카우보이 이야기이다. 전부 7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개츠비는 책 안에 1906년 9월 12일이라 날짜를 기입했지만, 이는 개츠비가 16살에 이 책을 읽으려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실수로, 14살 때 이 책을 읽은 작가는 호펠롱 캐시디가 자신이 전달하기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하여 실제적인 출판 연도를 간과했다고 한다.>라고 쓰여 있는, 다 떨어진 흰 책을 꺼냈다.

“이걸 봐요, 이걸 그 애가 어렸을 적에 가지고 다니며 읽던 책이요. 이걸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거요.”

그는 책의 맨 뒷장을 펼치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돌려놓았다.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장의 면지에 ‘계획표’라고 적

혀 있고, 날짜는 1906년 9월 12일이었다.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기상—오전 6:00

아령 들기와 장벽 오르내리기—오전 6: 15~6: 30

전기학 공부, 기타—오전 7: 15~8: 15

일—오전 8: 30~오후 4: 30

야구 및 운동—오후 4: 30~5: 00

웅변술과 올바른 자세 잡는 법을 알고 연습하기(웅변 연습, 포즈 연습)—오후 5: 00~6: 00

발명에 필요한 공부—오후 7: 00~9: 00

일반적 결심

새프터스나 혹은 000(뭐라 적혀 있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다.)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금연. 껌을 씹지 말 것.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할 것.

매주 유익한 책이나 잡지를 한 권씩 읽을 것.

매주 5 달러(줄을 그어 지웠다.) 3달러씩 저축할 것.

부모님께 더 잘할 것.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죠.”

노인이 말했다.

“이 정도면 지미가 어떤 녀석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네, 짐작됩니다.”

“지미는 크게 출세할 애였소. 그 애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원칙들을 가지고 살았거든. 그 애가 자신을 개발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겠소? 그 애는 그런 점에서 언제나 훌륭했소. 언젠가는 그 애가 나더러 돼지처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애를 때려준 적도 있었다오.”

그는 책을 그대로 덮기가 싫은 듯, 각 항목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는 열띤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 목록을 옮겨 적기를 기대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3시가 조금 못 되어 플러싱에서 루터교의 목사가 도착했고, 나는 혹시라도 다른 자동차가 왔나 싶어 무심결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건 개츠비의 부친도 마찬가지로였다. 시간이 흘러 하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홀에서 기다리며 서 있자, 노인은 불안한 듯 눈을 깜박거리더니 애매하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비를 닦았다. 목사가 몇 번이나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자 나는 그를 옆으로 데려가 30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5시경 3대의 차량으로 이뤄진 우리의 행렬이 묘지에 도착했고, 제법 심하게 내리는 가랑비를 맞으며 입구에 멈춰 섰다. 맨 앞에는 무시무시하게 검고 비에 흠뻑 젖어 더 음산해 보이는 영구차가, 그다음으로 개츠 씨와 목사, 그리고 내가 탄 리무진이, 그리고 그 뒤로 웨스트에그에서 온 우체부와 네댓 명의 하인들이 개츠비의 스테이션왜건을 타고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장례 행렬이 문을 통과해 묘지 안으로 들어설 때 나는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누군가가 질퍽한 땅에 꺾어 있는 물을 튀기며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석 달 전 어느 날 밤 개츠비의 서재에서 그의 책들을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던, 올빼미 안경을 쓴 그 남자였다.

그 뒤로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가 장례식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의 두꺼운 안경 위로 빗물이 쏟아지자, 그는 개츠비의 묘지 위를 덮은 보호 천막이 벗겨지는 것을 보기 위해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때 나는 개츠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이미 너무나 멀리 있었고, 그저 나는, 아무런 분노의 감정도 없이, 데이지가 아무런 조문이나 조화도 보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떠올렸을 뿐이었다.

누군가가 '내리는 빗속에 누워 있는 고인을 축복하소서.' 라고 중얼거리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올빼미 안경을 쓴 사내가 '아멘' 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빗속에서 재빨리 흩어져 자동차를 향해 뛰어갔다.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가 묘지 입구에서 내게 말을 걸었다.

“집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그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맙소사! 평소에는 수백 명씩 그의 집에 드나들었잖아요.”

그는 안경을 벗어 다시 안팎을 닦아냈다.

“이런, 개자식들 같으니라고.”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들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예비학교에서, 나중에는 대학에서 서부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12월의 어느 날 저녁 6시, 시카고보다 더 먼 곳으로 가는 친구들은 시카고에 사는 몇 명의 친구들과 낡고 어두운 유니언 역에 모여, 벌써부터 휴가의 즐거움에 들떠서 성급한 작별인사를 나누곤 했다. 여러 여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소녀들의 털 코트와 차디찬 입김을 내뿜으며 지껄이던 대화를 기억하고, 옛 친구의 모습에 우연히 눈에 띄면 머리 위로 높이 흔들려대던 손길과 ‘넌 오드웨이의 집에 갈 거야? 허쉬네는? 슐츠네는?’ 하고 서로 초대 받은 곳을 묻고 확인했던 일과 장갑을 낀 우리의 손에 꼭 쥐여져 있던 기다란 녹색 차표를 기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입문 옆 철로에 멈춰 서 있던 ‘시카고, 밀워키, 세인트폴’ 행 철도 회사의 칙칙한 노란색 기차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그 자체인 양 즐거워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탄 기차가 겨울밤을 뚫고 달리기 시작하면, 진짜 눈이, 고향의 넓은 벌판에 내린 눈이 우리의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창문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위스콘신 역의 작은 불빛을 지나치면 어느새 공기 중에 매섭고 거친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차가운 복도를 지나쳐 객실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깊은 숨을 들이키며 그 공기를 들이마셨고, 다시 한번 그 공기 속으로 녹아들기 전에, 그 땅과 우리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체감을 느끼는 기묘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중서부였다. 밀이나 초원 또는 스웨덴 거주민들의 사라져버린 정착지가 아니라 내 젊은 날 흥분하여 가슴 두근거리며 돌아가던 기차 여행과 흑한의 어둠 속의 가로등과 썰매의 종소리, 그리고 불이 켜진 창문 너머 눈발 위로 호랑가시나무 화환의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그것의 일부였고, 그 기나긴 겨울에 대해 약간 엄숙한 기분이 들었고, 거주민들이 여전히 가문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도시의 캐러웨이 저택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서부의 이야기였음을 안다. 톱과 개츠비, 테이지와 조던 그리고 나는 모두 서부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우리에게 동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어떤 결함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동부가 나를 가장 흥분시켰을 때에도, 오하이오 너머의 흥하게 펼쳐져 있는 따분하고 광활한 도시들에 비교해—아이들과 아주 늙은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끊임없는 역마살에 시달리는—그곳에 비해 동부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던 때에도, 심지어는 그런 때조차도 나는 항상 그곳이 어떤 왜곡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웨스트에그는 아직도 내게는 기이하고 환상적인 꿈으로 나타났다. 마치 엘 그레코(이탈리아 조각가, 화가.)가 그린 밤의 풍경처럼 보였는데,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기괴한 수백 채의 집들이 음울하고 위협적인 하늘과 광채가 없는 달 아래 웅크리고 있고, 그림 앞쪽에는 야회복을 입은 네 명의 남자가, 하얀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들것을 들고 보도를 걸어가고 있다. 들것 가장자리에 축 늘어져 있는 그녀의 손에는 몇 개나 되는 보

석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다. 침통한 표정으로 남자들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데, 잘못 찾은 집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여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개츠비의 죽음 이후, 내게 있어 동부는 그렇게 심란한 장소였고,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곳이었다. 바삭바삭한 낙엽들이 피우는 푸른 연기가 허공에 흩어지고 빨랫줄 위의 젖은 빨래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뻗뻗해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어색하고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어서 어쩌면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친절하면서도 무관심한 바다가 내가 남긴 흔적을 지워버릴 거라 믿기보다는 모든 일을 내가 직접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떠나고 싶었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났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고, 그녀는 큰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암전하얗아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골프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가 근사한 삽화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는 다소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 올렸고, 낙엽을 연상시키는 머리카락에, 얼굴은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 없는 장갑과 똑같은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녀는 아무런 반박 없이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했다. 물론 고개만 까딱해도 그녀와 결혼하려고 할 남자가 여러 명 있기는 했지만, 어쩐지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짐짓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고, 재빨리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았지만, 나는 작별인

사를 하기 위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당신이 나를 버린 거예요.”

느닷없이 불쑥 조던이 말했다.

“그날, 전화로 당신이 날 버렸어요. 지금은 당신에게 아무 미련이 없지만,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아참, 그리고 기억나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요?”

“물론 기억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나쁜 운전자는 단지 나쁜 운전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안전하다고 말했잖아요. 하여간 내가 나쁜 운전자를 만난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말은 그런 잘못된 추측을 했던 건 내 부주의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당신만의 은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난 서른 살입니다.”

내가 말했다.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기에는 난 당신보다 5살이나 더 먹었어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나고, 얼마쯤은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후회도 하며 나는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10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나는 톰 뷰캐넌을 만났다. 그는 여전

히 예민하고 특유의 공격적인 걸음걸이로 5번가를 따라 내 앞을 걷고 있었는데, 마치 길을 막는 것이 있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듯 두 손을 약간 몸에서 뻗 채 팔을 야단스럽게 휘저으며, 머리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눈동자를 따라 이리저리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를 따라잡지 않으려고 걸음을 늦추는 순간, 그가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보석상의 진열대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문득 나를 발견한 그는 되돌아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닉? 나와 악수하는 것이 싫은가?”

“그래,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자네 미쳤군, 닉.”

그가 빠르게 말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도대체 자네가 왜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걸.”

“툼.”

내가 물었다.

“그날 오후 자네는 윌슨에게 뭐라고 말했나?”

그는 아무런 말없이 나를 뻔히 바라보았고, 나는 그가 사라졌던 3시간 동안의 행방에 대한 내 추측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나를 쫓아와 내 팔을 잡았다.

“난 그에게 사실을 말했네.”

그가 말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현관 앞에서 있는 게 보이더군. 나는 사람을 시켜 우리가 집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위층으로 올라왔어. 그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차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즉시 나를 죽이고도 남았을 거야. 집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한쪽 손은 계속 주머니 속의 권총에 가 있었다고…….”

그는 덤벼들 듯이 화를 내며 말을 멈췄다.

“내가 사실을 말해 준 게 어쨌다는 건가? 그 작자가 일을 그렇게 만든 셈이야. 데이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네의 두 눈에도 먼지를 뒤집어써줘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모양이지만, 그는 흉악한 작자야. 마치 개를 치듯 머틀을 치고서 차를 세우지도 않았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진실조차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보게, 닉, 그 아파트를 넘겨주러 갔을 때, 찬장 위에 놓여 있는 그 빌어먹을 개 비스킷 상자를 보고 나는 그만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맵소사,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

나는 그를 용서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서는 이미 그가 한 모든 것이 완전히 정당화되어 있음을 알았다. 모든 것이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몰염치한 사람들이었다. 톱과 데이지, 그들은 물건이든 생명체든 박살을 내놓고, 자신들의 돈 속으로 혹은 자신들의 엄청난 무관심 속으로, 또는 그게 무엇이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어떤 것 속으로 숨어든 채,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이 만든 난장판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갑자기 내가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악수를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어리석은 짓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의 시골뜨기다운 편협함을 피해, 진주 목걸이를—또는 한 쌍의 소매 단추를 사기 위해—보석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떠날 때에도 개츠비의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의 잔디밭의 잡초가 내 집의 잔디만큼이나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을의 택시기사 중 한 명은 그 저택을 지날 때마다 항상 요금을 받기 전 1분 정도 차를 세우고 집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도 사건이 있던 날 밤 데이지와 개츠비를 이스트에그까지 태워다 준 그 택시기사인 듯한데, 아마도 나름대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추측하고 꾸며내어 떠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에서 내려서도 일부러 그 택시를 피했다.

나는 매주 토요일 밤을 뉴욕에서 보냈는데, 그의 번쩍거리고 화려한 파티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해서 그의 정원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끊임없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진입로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를 여전히 들을 수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실제로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그의 현관 앞에 멈춰 서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았다. 하지만 구태여 나는 그게 누구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나가지 않았다. 아마도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 파티가 끝났다는 것을 몰랐던 마지막 손님이었는지 모른다.

마지막 날 밤, 트렁크를 싸고 잡화상에 자동차를 판 뒤, 그의 집으로 건너가 거대하고 부조리한 실패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하얀 계단 위에 동네 꼬마가 벽돌 조각으로 갈겨 쓴 음탕한 낙서가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서, 나는 계단을 따라가며 구뎃발로 거칠게 문질러 그것을 지워버렸다. 그런 뒤 나는 어슬렁거리며 해변으로 내려가 모래 위에 큰 대(大)자로 벌렁 누웠다.

이제 해변에 있는 커다란 저택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해협을 건너는 나룻배의 불빛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빛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달이 점점 더 높이 떠오르자, 없어도 좋을 짐들은 녹아 없어져 버리고,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꽃으로 뒤덮인 것처럼 찬란하게 떠올랐을 이 오래된 섬이, 신세계라는 건강하고 싱그러운 녹색 젓가슴이 차츰 내 눈에도 떠올랐다. 바로 이 섬이야말로 새로운 신세계였던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나무들, 개츠비의 저택을 위해 길을 내주었을 그 나무들도 한때는 인간의 모든 꿈 중에서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꿈을 소곤거리며 유혹하기도 했을 것이다.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매혹적인 한순간에 인간은 이 대륙 앞에서 숨을 죽였을 것이 틀림없고,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던 심미적인 명상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역사상 마지막으로 그 경이의 능력에 상응하는 그 무엇에 직면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변에 앉아 그 옛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념에 잠겨 있던 나는, 개츠비가 처음으로 데이지의 집과 이어지는 선착장의 녹색 불빛을 집어냈을 때 느꼈을 경이로움을 생각했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오랜 길을 걸어왔고, 그 꿈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 꿈을 움켜쥐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등 뒤

에, 도시 너머 광활한 어둠 뒤편 어딘가에, 밤하늘 아래 펼쳐진 오래된 제국의 어두운 별판 너머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개츠비는 녹색 불빛을 믿었고, 한 해 한 해 우리들 앞에서 멀어져 가는 그 극도로 흥분된 걱정 of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교묘히 피해갔지만, 그런 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 내일, 우리는 더 빠르게 뿔 것이고, 우리의 두 팔을 더 넓게 뻗칠 테니까……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

그렇게 우리는 조류를 거슬러 가는 배처럼 과거의 파도에 밀려 가면서도 끊임없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F. 스콧 피츠제럴드 생애와 연보

1896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서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와 몰리 켈 리언의 사이에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 탄생.

1898

아버지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는 가구 사업이 실패하자 가족을 이끌고 버펄로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프록터 앤 갬블의 영업사원으로 일함.

1901

1월, 가족 모두가 다시 시러큐스로 이사한다. 여동생 애너벨리 태어남.

1903

9월, 일가족이 다시 버펄로로 돌아옴.

1908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프록터 앤 갬블에서의 직업을 잃고, 가족은 또다시 세인트폴로 돌아감. 피츠제럴드는 세인트폴 아카데미에 입학함.

1909

첫 단편 작품인 "레이먼드 저당의 신비"가 세인트폴 아카데미에서 발행하는 잡지 《지금과 그때》에 발표됨.

1911

뉴저지 주의 뉴먼 스쿨에 입학. 그곳에서 키릴 시고니 웹스터 페이지 신부를 만나는데, 이 신부는 그의 초기 지적 단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침. 이

때부터 1913년까지 《뉴먼 스쿨 뉴스》에 단편 세 작품을 발표함.

1913

9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 그곳에서 미국 문단에서 크게 활약한 에드먼드 윌슨과 시인 존 필 비숍과 친구가 됨. 학업보다는 문학과 연극 활동에 적극 참여함. 《나소 문학잡지》와 《프린스턴 타이거》에 단편, 희곡, 시 등을 발표함.

1914

12월, 세인트폴에서 일리노이 주 레이크포리스트 출신의 16세 소녀 지니브리 킹을 만남. 하지만 후에 그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데, 이때의 경험이 그의 모든 작품에 중요한 모티브가 됨.

1915

질병을 핑계로 프린스턴 대학을 휴학하고, 그해 내내 지니브리 킹과 데이트를 즐김.

1916

졸업을 목표로 프린스턴 대학에 복학한 뒤, 3학년 과정을 재수강함. 그해 3월 지니브리는 웨스트오버 교양 학교에서 퇴학당함. 피츠제럴드는 8월 일리노이 주 포레스트 호수로 지니브리를 만나러 감.

1917

1월, 피츠제럴드와 헤어진 지니브리는 6월에 다른 남자와 약혼함.

10월, 그는 프린스턴을 떠나 미 보병대의 소위로 입관됨.

11월, 캔자스 주 레번워스 요새로 배치받고, 그곳에서 〈낭만적인 에고이스트(Romantic Egoist)〉의 집필을 시작함.

1918

2월, 캔터키 주 루이빌의 테일러 요새로 (그 무렵, 〈낭만적 에고이스트〉를 탈고하여 뉴욕의 찰스 스크리브너스 선스 출판사에 보냄.), 4월 조지아

주 고든 요새, 6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 외곽의 세리던 요새로 전임
된. 7월, 앨라배마 주 대법원 판사의 딸인 젤다 세이어를 만남. 8월, 스크
리브너스 출판사는 그의 소설 출간을 거절함. 10월에 다시 개작하여 출판
사에 보내지만 그마저 거절당함. 그해 11월 뉴욕 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밀스 요새로 전임되어 해외 파견을 기다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남.

1919

2월, 군에서 제대한 뒤, 뉴욕으로 가 배런콜리어 광고 회사에 입사함. 6
월, 피츠제럴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젤다가 약혼을 파기함. 7
월, 직장을 그만두고 세인트폴로 돌아와 그해 여름 내내 <낭만적 에고이
스트>의 개작에 몰두함. 9월, 스크리브너스 출판사에서 <낙원의 이쪽>이
라는 제목으로 출판 허락을 받음.

1920

1월, 남부로 돌아와 젤다와 약혼함. 다른 단편 소설들과 함께 <얼음 궁전>
을 출판함. 3월, 첫 장편 소설인 <낙원의 이쪽>이 출간되고, 4월 3일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의 목사관에서 젤다와 결혼. 신혼여행 후, 그들은
코네티컷 주 웨스트포트에 거주함. 같은 해 가을 잡지 <스마트 셋>에 희
곡인 <오월제>를,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말괄량이 아가씨들과 철
학자들(Flappers and Philosophers)>을 발표함. 10월, 뉴욕 시로 이주.

1921

5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와 나머지 여름은 미네소타
주 화이트 베어 호수에서 보냄. 9월, 딸 프랜시스 스콧(에칭 스코티)이 태
어나다. 11월부터 1922년 6월까지 세인트폴에 거주함.

1922

3월, 두 번째 소설 <저주받은 아름다운 사람들(The Beautiful and
Philosophers)> 출간. 9월, 두 번째 단편집 <재즈 시대의 이야기들(Tales
of the Jazz Age)>이 출간. '리츠보다 큰 다이아몬드(The Diamond as Big
as the Ritz)'가 <스마트 셋 6월호>에 실림. 여름, 화이트 베어 요트 클럽으

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의 초기 줄거리를 세움. 피츠제럴드는 뉴욕으로 돌아와 그레이트 벅, 게이트웨이 드라이브 6번지에 거주. 이곳에서 그들은 링 라드너를 만나고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세상에 대해 알게 됨. '겨울 꿈(Winter Dream)'이 메트로 폴리탄 12월호에 게재됨.(10월 룽아일랜드의 그레이트벙으로 이주. 이곳에서 소설가 링 라드너를 만나고,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작품의 줄거리를 잡음.)

1923

11월, 장편 희극 '야채(The vegetable)'가 애틀랜틱 시에서 시험 공연되지만 실패함. 이후 피츠제럴드는 빚을 갚기 위해 5달 동안 단편 소설의 집필에 매진함.

1924

장기 체류를 위해 5월 유럽으로 떠남.(4월, 프랑스에 거주함. 켈다가 프랑스 조종사인 에두아르 조장파 애정행각을 벌임.) 결국 리비에라의 세인트 라파엘 시에 정착하고 남프랑스의 앙티브 만에서 사라 머피를 만남. 이때의 경험이 '밤은 부드러워'의 줄거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함. <면제(Absolution)>가 《아메리칸 머큐리》 6월호에 게재됨. 여름부터 가을까지 '위대한 개츠비'의 초고 집필.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위대한 개츠비'의 개작에 들어감.

1925

4월, 세 번째 장편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가 출판됨. 5월, 프랑스 몽파르나스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만나고, 파리 근교에서 이디스 윌튼을 만남.

1926

1월, 《레드북》에 <부잣집 아이(The Rich Boy)>가 출간되고, 2월, <모든 슬픈 젊은이들(All the sad Young Men)>이 출간됨. 12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일가족은 리비에라에서 다시 봄과 여름을 보냄.(미국으로 돌아옴.)

1927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밤은 부드러워〉에서 로즈마리 호이트의 모델이 된 로이스 모런과 사귀. 3월, 피츠제럴드 가족은 델라웨어 주 월밍턴 외곽의 장원인 엘러슬리로 이주함.

1928

4월 파리로, 9월 엘러슬리로 다시 돌아옴.

1929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함.

〈벨라의 최후(The Last of the Belles)〉가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서 출판됨.

1930

2월. 북아프리카 여행.

4월, 켈다가 신경 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함. 병 치료를 위해 스위스로 이주하고, 켈다는 프랭켄스 진료소에 입원함.

1931

1월, 부친 사망으로 귀국함.

〈다시 찾은 바빌론〉이 새터 데이 이브닝 포스트 2월호에 기재됨. 9월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할리우드로 가 메트로-골드윈-메이어(Metro-Goldwyn-Mayer) 사에서 일함.

1932

2월, 켈다가 재발된 신경쇠약으로 메릴랜드 주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 입원함. 켈다의 소설 〈나를 위해 왈츠를 남겨주오(Save Me the Waltz)〉가 출간됨.

1933

볼티모어의 파크 애버뉴로 집을 옮김.

1934

1월, 젤다가 신경쇠약으로 쓰러짐. 4월, 네 번째 소설 <밤은 부드러워>가 출간됨.

1935

피츠제럴드가 병에 걸려, 휴양을 위해 트라이턴과 애슈빌에 머뭄. 3월 네 번째 단편집 <기상나팔 소리(Taps at Reveille)>가 출간됨. 겨울 동안 지내기 위해 다시 헨더슨빌로 감. 나중에 '붕괴'라는 에세이집에 실리게 되는 글을 집필하기 시작함.

1936

4월, 젤다, 애슈빌의 하일랜드 정신병원에 입원함. 피츠제럴드의 모친 9월에 사망함.

1937

7월, 그는 세 번째로 할리우드로 가 MGM과의 6개월간 계약을 맺음. 그 무렵에 칼럼니스트인 세일러 그레이엄과 만나고, 이들의 교제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됨.

1938

4월, 알라의 가든에서 식민지령 말리부로 이사하고, 10월 말리부에서 엔시노로 이사하는데, 이곳에서 그는 에드워드 에버렛 호손의 영지 위에 있는 오두막에 머무름. 12월 MGM은 그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

1939~1940년

봄까지 할리우드에서 프리랜서로 일함. 할리우드를 소재로 한 소설<겨울 카니발(Winter Carnival)>은 뉴욕 병원에서 완성.

1940

<마지막 거물(The Last Tycoon)> 집필. 에스콰이어 지에 <적절한 취미(Pat Hobby)> 실림. 12월 21일, 그레이엄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함. 27일,

메릴랜드 주의 록빌 세인트 묘지에 묻힘.

1941

10월, 미완성 유작인 <마지막 거물>이 에드먼드 윌슨의 편집으로 출간됨.

1945

6월, 유작 에세이집 <붕괴(The Crack · Up)>가 출간됨.

1948

하일랜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켈다가 화재로 사망함.

1

내가 어리고 지금보다 더 상처받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는 내게 몇 가지 충고를 해주셨고, 그 뒤로 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왔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항상 한 가지를 기억 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처럼 운이 좋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지만, 우리 부지는 말이 없는 중에도 이상하리만큼 의사가 통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 결과, 나는 매사에 판단을 보류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런 성격 때문에 다양하고 기묘한 사건들에 휘말려 들기도 했고, 또한 적지 않은, 노련한 얼간이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그러한 특성이 재빨리 간파되는 법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드러날 때에는 그러한 자질 자체가 관심을 끌기 마련이었다. 그 결과 학창 시절에는 내가 거칠고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의 비밀스러운 슬픔을 남몰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모사꾼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비밀들 대부분

은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은밀하게 찾아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 같은 어떤 기미라도 보이면, 나는 종종 잠이 든 척 또는 뭔가에 몰두한 척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적개심이 담긴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이곤 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은밀한 비밀이라는 것들이, 또는 최소한 그들이, 그것들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주로 남의 것을 표절한 것이거나, 그것을 숨기기 위한 공공연한 제어로 왜곡되어 있곤 했기 때문이다.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무한한 희망에 관계된 것이다. 나는 지금도 만약 내가 그런 성격을 잃어버린다면 뭔가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약간은 걱정하고 있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신사인 체하며 충고하셨던 것처럼, 나도 신사인 체하며 되된다. 타고난 품성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 포용력을 으스스한 뒤에야, 나는 그런 포용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품성은 딱딱한 바위나 또는 축축한 습지에 근거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든지 상관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무렵, 나는 세상이 획일화되어지길, 그리고 일종의 도덕적 배려가 영원하기를, 그리고 내가 우월한 눈빛으로 인간의 마음속을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했다. 오직 개츠비, 이 책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 그만이 내가 반발하지 않는, 내 반응으로부터 예외가 되었다—개츠비는 내가 진심으로 경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만약 인성(人性)이 계속적인 일련의 성공적인 몸가짐이라면, 그에게는 나무랄 데 없는 인성이 있었고, 마치 먼 거리에서 일어난 지진을 감지하는 복잡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

처럼 인생에 있어서의 가능성에 대한 한층 고양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창조적인 기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리는 맥 빠진 예민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한 적 없는 그리고 다시는 발견하지 못할 듯싶은 희망을 향한 탁월한 재능이자, 낭만적이고 몽상적인 의지였다. 아니, 중국에는 개츠비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지 나는 개츠비를 희생물로 삼은 이들이나,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돌아다니던 더러운 먼지 같은 추잡한 소문들 때문에 잠시나마 인간의 자만심이나 짧은 슬픔, 혹은 숨 가쁜 희열에 대한 흥미를 잃었던 것이다.

우리 집안은 이곳 중서부 도시에서는 3대에 걸쳐 품행이 바르고 뛰어난 사람들로 꽤 알려진 부유한 집안이었다. 캐러웨이 가문은 제법 큰 문중이었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우리는 버클루 공작(영국 왕, 찰스 2세의 서자. 1685년 제임스 2세의 왕위 등극에 반대하는 반란을 주도했으나 실패함.)의 후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가문의 실질적인 시조는 내 큰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은 1851년 이곳으로 이주하신 뒤, 남북전쟁에는 대리인을 참전시키고, 현재 내 아버지가 물려받아 일하고 계시는 철물 도매업을 시작하셨다.

나는 큰할아버지라는 분을 한 번도 뵈지 않았지만, 내가 그분을 많이 닮았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다소 무뚝뚝하게 생긴 초상화와 비교해보면 그런 것도 같다. 나는 1915년 뉴헤이븐(미국 코네티컷의 작은 도시, 예일 대학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을 졸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졸업하신 지 25년 뒤였고, 얼마 뒤 나는 세계대전이라 알려진, 때늦은 튜턴(독일)족의 이동

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의 그 역습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던 나머지 고향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마음이 들떠 있었다. 세상의 따스한 중심지와 같던 중서부가 이제는 우주의 너털거리리는 가장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한 사람 더 그 일로 밥벌이를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숙모들과 숙부들 모두 마치 나를 위한 대학 예비학교를 고르던 때처럼 그 일에 관해 의논했고, 마침내 마땅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아주 엄숙한 말투로 '그럼 그렇게 하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일 년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여러 가지 일로 지체된 후 나는, 영원히 안주할 작정으로—1922년 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동부로 이사했다.

시내에 방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지만, 따뜻한 계절인데다 막 넓은 잔디와 정든 나무들이 있는 시골을 떠난 터였기에, 같은 사무실의 젊은 친구가 출퇴근이 가능한 마을에 함께 살 집을 빌리자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생각이 꽤나 근사하게 들렸다. 그가 괜찮은 집을 찾아냈는데, 비바람에 시달린 판자 방갈로로 월세가 80달러였다. 하지만 막 이사하려는 순간 회사는 그를 워싱턴으로 발령을 냈고 나는 혼자서 그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내게는 개 한 마리와—최소한 녀석이 도망가기 전까지 며칠 동안은—넓은 다지(미국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브랜드.) 중고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해주는 핀란드인 가정부가 있었다. 그녀는 전기난로 위로 몸을 구부린 채 핀란드 속담들을 중얼거리고는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더 늦게 이사 온 어떤 사내가 길에서 나를

불러 세우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지냈다.

“웨스트에그에는 어떻게 가야 하죠?”

그가 힘없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었다. 그런 뒤 나도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걸어갔는데 더 이상 고독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이자 개척자요, 초기 정착민이었다. 그는 무심결에 내가 이 마을(웨스트에그)의 한 식구임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햇살과 함께—영화에서 사물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빠른 속도로 나뭇가지에서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나뭇잎들을 보며 여름과 함께 삶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친근한 확신을 가졌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읽어야 할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도 마음도 활기차게 지내야 했다. 나는 금융과 신용 대부 그리고 증권 투자에 관한 책을 12권이나 넘게 샀다. 막 조폐국에서 찍혀 나온 새 돈처럼 금빛과 붉은 빛을 자랑하는 그 책들은 내 서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오직 미다스 왕(그리스 신화의 프리기아의 왕. 그의 손이 닿는 물건은 모두 황금으로 변했다고 함.)과 모건(19세기 중엽 미국의 금융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마이케나스(BC67-AD8: 고대 로마의 정치가, 예술의 보호자.)만이 알고 있는 눈부신 비밀을 보여주겠노라 약속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 학창시절 나는 문학에 다소 능통한 편이었고—어느 해인가 대학 신문인 〈에일 뉴스〉에 아주 진지하고 명쾌한 연재 사설을 쓴 적도 있었다—이제 그러한 재능을 내 인생 속으로 다시 불러들여, 세상 모든 전문가들 중 가장 흔치 않은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격언에 불과한 말은 아니다. 인생이란 결국 또 다른 창으로 바

라볼 때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내가 북미에서도 가장 유별난 지역 중 한 곳에 집을 빌린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그 집은 뉴욕의 정동(正東) 쪽으로 뻗어나간 가느다랗고 떠들썩한 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천연적으로 기이한 다른 여러 곳 중에서도 특히 희한하게 생긴 두 지형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 두 지역은 뉴욕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명목상으로는 만(灣)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만으로 갈라져, 서반구에서 가장 개발되고 습한 롱아일랜드 해협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이 두 지역은 서로 접한 같은 형태의 두 개의 거대한 계란형 섬들이었다. 콜럼버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처럼 완전한 타원형은 아니었지만, 외형적으로 워낙 닮아 있어서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에게도 끊임없는 경이로움을 자아낼 것이 틀림없었다. 날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외형과 크기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불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는데 이스트에그에 비해 상류사회의 유행을 덜 타는 곳이었다. 비록 그 기괴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인 꼬리표이지만 그 두 섬을 악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집은 그 달걀 모양의 아주 끝 부분의, 해협에서 겨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철에 집세만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를 지불해야 빌릴 수 있는 두 채의 거대한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쪽에 위치한 집은 모든 면에서 터무니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는데, 실제 노르망디의 시청을 모방한 것으로, 저택 한쪽에는 가느다란 수염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난 담쟁이덩굴 아래로, 놀랄 만큼 새것인 담과 대리석 수영장 그리고 40에이커에(1에이커는 약 4,047m²=1,224평) 달하는 잔

디밭과 정원이 있었다. 그곳은 개츠비의 정원이었다. 아니, 그것보다 그때는 개츠비를 알지 못할 때였으니, 그런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사는 정원이라 하는 것이 맞겠다. 내 집이 눈에 거슬렸겠지만, 그래도 심하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는지, 너그럽게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바다의 경치와 함께 부분적으로 내 이웃의 잔디 일부분을 누리며—월세 80달러에—백만장자들과 가까이 산다는 사실에 흐뭇한 위안을 받았다.

만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만의 건너편에는 화려한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해안을 따라 번쩍였는데,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차를 몰고 건너간 그날 저녁부터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데이지는 나와 육촌지간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막 전쟁이 끝난 뒤, 나는 시카고에서 이틀 동안 두 사람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어떤 운동이든 다양한 재능이 있었지만, 뉴헤이번 시절에는 풋볼선수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엔드(미식축구에서 전위선 양쪽 끝에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존재였는데, 그 탁월한 재능으로 21살에 이미 상당한 위치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그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내리막 길처럼 보이게 된 그런 인물들 중 하나였다. 그의 가족은 엄청난 부자였다. 심지어 학창시절에는 그의 씹씹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시카고를 떠나 동부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의 숨을 잇아갈 유행들을 좇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한 때의 폴로 경기용 조랑말을 포리스트 호수(일리노이 주 북동부 미시간 호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카고 북쪽 50km 지점에 있다. 부유한 교외의 고급 주택과 저택들이 많이 건축 되어 있다. 피츠제럴드의 청년 시절 여자친구인 지네브

러 킹이 그곳에 살았었다.)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같은 연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 그들이 동부로 왔는지 나는 잘 모른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한 1년을 보낸 뒤, 사람들이 폴로 경기를 하는 곳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을 찾아 어디든 쉽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었다. 전화 통화에서 데이지는 이번에는 영구적인 정착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톰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는 풋볼경기의 극적인 흥분을 찾아, 약간은 동경하듯, 영원히 떠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따스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 두 명의 옛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들의 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을 들인, 밝은 붉은 색과 흰색의 조지 왕조 식민지 스타일의 저택으로 만(灣)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었다. 모래사장 끝에서 시작하여 현관까지 약 400미터 정도 이어져 있는 잔디밭이 해시계를 뛰어넘어 벽돌 길과 타는 듯한 정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저택까지 도착한 잔디는 그 여세를 몰아, 생기 넘치는 덩굴 모양으로 집의 한쪽 면을 감싸 오르고 있었다. 집 앞쪽은 프랑스식으로 커다란 두 쪽짜리 창문이 달려 있었는데, 우리가 황금빛으로 반사되어 빛을 뿜어내고, 따스하고 바람이 부는 오후를 만끽하기 위해 양쪽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을 입은 톰 뷔캐년이 현관 앞 난간 위에 다리를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번 시절 이후 많이 변해 있었다. 톰은 탄탄한 몸에

담황색 머리카락을 가진 30대의 남성으로 다소 딱딱해 보이는 입술과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거만하게 빛나는 두 눈은 얼굴 전체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인상을 주었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자세는 항상 공격적인 분위기를 내뿜었다. 여자 옷처럼 풍성하고 우아한 승마복으로도 그의 육체가 가진 거대한 힘을 숨길 수가 없었다—번쩍이는 부츠는 가장자리의 레이스 장식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꼭 조여져 있었고, 얇은 코트 아래서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단단한 근육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 보였다. 지렛대처럼 엄청난 힘을 지닌—한마디로 대단한 체격이었다.

그의 음성은, 거칠고 허스키한 고음으로, 짜증스러운 듯이 말한다는 인상을 더했다. 심지어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간섭하듯 경멸하는 듯한 말투가 담겨 있었다—그리하여 뉴헤이번 시절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자, 단지 내가 자네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이 최종 결론이라 단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게.’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말투였다. 우리는 최고 학번의 같은 클럽에 속해 있었는데, 비록 한 번도 친했던 적은 없었지만, 항상 그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다소 거칠고 도전적인 동경을 품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몇 분 동안 햇살이 비치는 난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은 집을 구했어.”

그의 번뜩이는 두 눈이 씩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한쪽 팔로 내 몸을 돌리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따라 넓적한 손을 움직였다. 그의 손짓 안에는 움푹 내려앉은 이탈리아 식 정원과 반 에이커 규모의 짙은 향기가 코를 찌르는 장미 화단, 그리고 앞바다의 조수에 흔들거리는 몽툰한 뱃머리를 가진 모터 보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석유업자인 드메인의 소유였지.”

그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럽게 내 몸을 다시 한 번 돌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천정이 높은 복도를 지나, 양쪽 끝에 달린 두 쪽짜리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유일하게 본관과 연결되어 있고, 선명한 장밋빛으로 채색되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살짝 열려 있는 창문은, 그 너머 정원에 자라는 싱그러운 풀 위로 던져지는 하얀 빛들로 인해 반짝이고 있었는데, 마치 풀잎들이 집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들바람이 한쪽 끝에서 불어와 다른 쪽 끝으로 빠져나가자 커튼은 투명한 깃발들처럼 날아오르다 하얗게 설당을 입힌 웨딩 케이크 모양의 천정을 향해 다시 휘말려 올라갔고, 바람은 바다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듯 와인 빛깔의 바닥 깔개 위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방 안에서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단 하나의 물체는 거대한 소파뿐이었고, 그 위에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닦을 내린 기구처럼 치마를 펼럭이며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하얀색으로 차려 입었는데, 두 사람의 드레스가 마치 저택 주변을 짧게 비행한 뒤 이제 착륙하려는 것처럼 잔물결을 일으키며 펼럭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채찍을 휘두르는 듯이 탁탁거리고 찰락거리는 소리와, 벽

위에 걸려 있는 그림이 신음을 내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톱 뷰캐넌이 뒤쪽 유리문을 닫자, 굉 소리와 함께 갇혀 있던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고, 커튼과 깔개 그리고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두 여자의 치마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두 사람 중 더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녀는 장의자 위에 몸을 쭉 늘어뜨리고, 턱을 들어 올린 자세로 미동조차 없이 앉아 있었는데 마치 턱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채 그것이 떨어질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눈질로 나를 보았는지 몰라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런 모습에 하마터면 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중얼거릴 뻔했다.

또 한 여자, 데이지는 살짝 일어나려는 시도를 했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약간 앞으로 수그렸다 하며 거북하면서도 매력적인 작은 미소를 지었고, 나도 따라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행복해서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재치 있는 말을 던진 것처럼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내 손을 잡은 채 흡사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특유의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균형을 잡으며 앉아 있는 아가씨의 이름이 베이커라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데이지의 이 나지막한 목소리는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에게로 몸을 숙이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당치도 않은 비난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매력을 깎아내리지는 못했다.)

어쨌든 베이커 양의 입술이 달짝거렸고,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살짝 머리를 끄덕인 뒤 그녀는 다시 머리를 뒤쪽으로 기울였다. 분명 균형을 잡고 있던 물체가 약간 기우뚱거리려 조금 놀란 것 같았다. 다시 내 입술 사이에서 변명이랄까 일종의 사과와 말이 뱀돌았다. 그녀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부심의 과시는 내게서 경이로운 찬사를 끌어냈다.

나는 특유의 낮고 짜릿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한 육촌 동생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시는 연주되지 않을 악보의 음표처럼, 높낮이에 따라 귀를 세우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소리였다. 그녀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빛나는 것들, 즉 빛나는 눈동자와 빛나는 열정이 담긴 입술로 인해 사랑스러웠고, 그녀의 목소리 속에 담긴 흥분은 매우 자극적이어서 남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 노래하는 듯한 열망, ‘이봐요.’ 라고 속삭이는 듯한 어조 속에는, 지금까지 그녀가 선사한 즐거움이나 흥분에 대한 언질과 앞으로 몇 시간 즐겁고 흥분되는 일들이 계속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동부로 오는 길에 어떻게 하루를 시카고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리고 열 명도 넘는 사람들이 내게 그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말을 했다.

“날 보고 싶어 하던가요?”

그녀가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외쳤다.

“도시 전체가 적막해. 모든 자동차들이 애도용 화환처럼 왼쪽 뒷바퀴를 검게 칠했고, 노스쇼어(미시건 호수를 끼고 있는 시카고의 거리로 주로 부유층이 사는 곳.)를 따라 밤새 끊임없는 통곡 소리가 들리던

데.”

“너무 근사해요! 우리 돌아가요, 톰. 내일 당장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

“아기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싶어.”

“지금은 자고 있어요. 올해 3살이 되었죠. 우리 딸을 본 적이 있었나요?”

“못 봤어.”

“그렇다면 그 애를 보셔야 해요. 그 애는…….”

쉽 없이 방 안을 맴돌고 있던 톰 뷰캐년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닉?”

“중권 업무.”

“누구와?”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데?”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이 날 화나게 만들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만일 계속 동부에 머문다면 알게 될 거야.”

“오, 계속 동부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게.”

그는 데이지를 훌쩍 바라본 뒤 다시 내게로 눈을 돌렸다.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산다는 건 빌어먹을 멍청이나 할 짓이

지.”

바로 그 순간 베이커 양이 ‘정말 그래요, 그렇고말고요.’ 라고 대답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 나는 움찔 놀랐다. 내가 방 안에 들어온 뒤 그녀가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내가 놀랐던 만큼 그녀 자신도 놀랐던 것 같다. 그녀는 재빨리 연거푸 하품을 하며 날랜 몸짓으로 일어나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온몸이 뻗뻗해요.”

그녀가 불평했다.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날 탓하지는 마.”

테이지가 응수했다.

“오후 내내 널 뉴욕에 데려가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괜찮아요.”

베이커 양은 막 하인이 주방에서 가져온 너 잔의 컵테일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내 컨디션은 정말 최고니까.”

집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야말로.”

그는 마치 잔 밑바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술까지 비우려는 것처럼 자신의 술잔을 들어 거침없이 마셨다.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해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녀가 ‘해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나는 베이커 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일은 즐거웠다. 날씬하고 젓가슴이 작은 아가씨로 젊은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젖혀, 꼳꼳하게

세운 상체를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가늘어진 회색 눈동자가 나른하고 매력적이면서도 불만 어린 표정과 그에 상반되는 정중한 호기심을 담고 나를 바라보았다. 문득 내가 어디선가 그녀를 또는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에그에 사시죠?”

그녀가 경멸하듯이 말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전 거기 아는 사람이…….”

“개츠비 씨를 알고 계실 거예요.”

“개츠비?”

데이지가 물었다.

“개츠비 누구?”

그가 내 이웃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하인이 저녁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억센 팔을 내 팔에 단호하게 끼워 넣으며 톰 뷰캐넌은 마치 체스 판의, 말의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나를 방 밖으로 끌어당겼다.

두 젊은 여자는 서로의 엉덩이에 팔을 가볍게 얹은 채 우리보다 앞장서서 석양이 깔린 장밋빛 난간을 향해 날씬하고도 나른한 걸음걸이로 걸어나갔다. 잿이든 바람에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네 개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웬 촛불이지?”

데이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촛불을 비벼 줬다.

“2주 후면, 하루 중 낮이 가장 긴 날이 돼요.”

그녀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깜박 잊어버리곤 하지 않나요? 나는 항상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기다리다가 정작 그날만 되면 잊어버리곤 해요.”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해.”

베이커 양이 하품을 하며, 마치 침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식탁 앞에 앉았다.

“좋아, 어떤 계획이 좋을까?”

데이지는 난처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내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두 눈을 고정시키며 두려움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이것 봐요!”

그녀가 불평했다.

“여길 다쳤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손가락 관절이 검고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그랬어요, 톰.”

그녀가 비난하듯 말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짐승 같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유별나고 거대하고 꼴사나운 신체를 가진 별종…….”

“난 꼴사납다는 단어를 싫어해.”

톰이 말을 끊으며 반박했다.

“설령 농담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꼴사나운걸요.”

테이지가 막무가내로 우겼다.

가끔씩 그녀와 베이커 양은 동시에 말을 하곤 했는데, 조심스럽다가 불쑥 던지는 엉뚱한 농담은 진짜 잡담을 나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고,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처럼 차가우면서도 무표정한 얼굴에는 그 어떤 희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톰과 내 존재를 받아들였지만,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거나 우리 때문에 즐겁다는 듯한 유쾌하고 정중한 노력을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녀들은 곧 저녁식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밤도 끝날 것임을 알기에, 무심결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기대에 대한 실망과 그에 대한 순수하고 긴장된 두려움을 느끼면서, 매 순간순간을 즐기며 안타깝게 쫓기듯 저녁 시간을 보내는 서부와는 너무나 달랐다.

“너와 같이 있으니 내가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군, 테이지.”

두 번째 잔의, 코르크 향이 다소 강하게 나는 적포도주를 비우며 내가 고백했다.

“농작물이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까?”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명이 바로 지금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어.”

갑자기 톰이 거칠게 말했다.

“난 그 문제들에 관해서는 굉장한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렸어. 고더드〈책과 저자 모두 허구로 ‘밀려오는 유색 물결(the Rising tide of color)’ 을

쓴 로스롭 스토더드의 이름과 책 제목을 살짝 바꾼 것. 스토더드를 비롯한 인종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언제나 '백인의 의무'라는 구실이 뒤따랐는데, 이는 백인들에게는 뒤떨어져 있는 여러 민족에게 문명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구실로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사람이 쓴 '유색인종 제국의 부흥'이란 책을 읽어보았나?"

“아니, 못 읽었네.”

그의 말투에 다소 당혹감을 느끼며 나는 대답했다.

“하여튼 참 좋은 책이야. 모두 다 그 책을 읽어야만 해. 만약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백인종은, 우리는 완전히 침몰하고 만다는 거야. 과학적인 자료지. 증명된 내용이야.”

“틈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테이지가 생각이 없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이는 간 단어들이 섞여 있는 어려운 책들을 읽어요. 그게 무슨 단어였죠? 우리가…….”

“그 책들은 전부 과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녀를 짜증스럽게 바라보며 틈이 강하게 주장했다.

“이 작자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해 놓았어.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야. 우세한 인종인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 들 거야.”

“우리가 지금껏 그들을 잘 무찔러 왔잖아요.”

강렬한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사납게 얼굴을 찡그리며 테이지가 말했다.

“당신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야 해요.”

베이커 양이 입을 열었지만 틈이 자신의 의자에서 거칠게 몸을 고쳐 앉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 책에 의하면 우리는 노르딕(북방민족)이라는 거야. 내가, 그리고 자네도 그리고 당신도…….”

아주 잠깐 주저한 후에 그는 고개를 끄덕여 데이지를 포함시켰고,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윈크를 했다.

“우리가 생산한 모든 것들이 전부 이 문명사회를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 과학과 예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말이야. 알겠어?”

그의 열렬함에는 마치 예전보다 더 심해진 자기자만이, 그것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듯한 어떤 애처로움이 있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집사가 난간을 떠나자마자, 데이지는 대화가 잠시 중단된 사이를 틈타 나를 향해 몸을 숙였다.

“우리 집안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속삭였다.

“집사의 코에 관한 거예요. 집사의 코에 대해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오늘 밤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글쎄, 저 사람은 원래부터 집사가 아니었어요. 뉴욕의 어떤 저택에서 은식기를 닦는 일을 했는데, 200인분의 은식기를 닦아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을 닦았는데, 마침내 그게 그의 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태가 나빠졌다 점점 더 악화되었겠군요.”

베이커 양이 끼어들었다.

“그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만 했어.”

잠시 동안 마지막 햇살이 그녀의 상기된 얼굴 위로 쏟아져 로맨

탁한 효과를 가져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나를 숨 가쁘게 끌어당겼다. 빛이 사라지면서 햇살이 마치 황혼이 깃들어 흥겨운 골목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처럼, 아쉬움으로 미적거리며 그녀의 얼굴 위를 배회했다.

집사가 다시 들어와 톰의 귀에 무언가를 중얼거리자, 잠시 얼굴을 찌푸리던 톰은 의자를 뒤로 밀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부재가 그녀에게 활기를 가져다준 듯, 데이지는 다시 앞으로 몸을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하듯 밝아졌다.

“오빠가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빠는 내게…… 장미꽃을 떠올리게 해요. 순수한 장미꽃을, 그렇지 않니?”

그녀는 동의를 구하듯 베이커 양을 향해 몸을 돌렸다.

“순수한 장미꽃 같지?”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조금도 장미를 닮지 않았다. 그러나 그저 즉흥적으로 쏟아낸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서는 자극적인 열기가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가슴속에 숨겨놓았던 그런 숨이 막히고 전을 어린 한 마리 말을 타고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냅킨을 탁자 위에 집어던지고, 실례하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베이커 양과 나는 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짧은 시선을 주고받았다.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가 경계하듯 몸을 일으켜 앉으며 경고 조로 ‘쉿!’ 하고 말했다. 나지막하고 격렬한 웅얼거림이 집 밖으로 새어 나오자, 부끄럽지도 않은 듯 베이커 양은 그 말을 엿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 웅얼거림을 간신히 이해할

수 있게 되려는 찰나, 소리가 잦아졌다가, 흥분한 듯 높아졌다가, 그런 뒤 다시 완전히 똑 끊어져 버렸다.

“당신이 말한 개츠비 씨가 제 이웃에 살고…….”

내가 입을 열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싶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순진하게 되물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인가요? 모두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놀랐다는 듯 베이커 양이 말했다.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녀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툼이 뉴욕에 어떤 여자를 두고 있어요.”

“여자를 두다뇨?”

내가 멍청하게 되묻자, 베이커 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 저녁식사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할 텐데요. 안 그래요?”

그녀가 말하는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드레스가 팔락거리는 소리와 가죽 부츠의 저벅거리는 소리와 함께 툼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정말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억지로 명랑한 척하며 데이지가 말했다.

자리에 앉으며 그녀는 베이커 양과 나를 탐색하듯 차례로 살펴본 뒤 계속 말을 이었다.

“잠시 밖을 내다봤는데, 너무나 낭만적이었어요. 잔디밭에 새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쾨나드나 화이트 스타라인(1910년 당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여객선을 만들던 영국의 대형 선박 회사들의 이름.)을 타고 온 나이팅게일이 분명해요. 그 새가 노래를 하며 날아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하듯 계속되었다.

“너무나 낭만적이었어요. 안 그래요, 톰?”

“아주 낭만적이었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는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난 뒤 여전히 해가 남아 있다면 자네에게 내 마구간을 보여주고 싶어.”

그때 집 안에서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그 즉시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 바람에 마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모든 이야기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식탁에서의 마지막 5분 동안 일어난 단편적인 일들 중에서, 아무 의미 없이 촛불이 다시 켜졌다는 것과, 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엉뚱한 곳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을 기억한다. 나는 데이지와 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추측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회의주의로 흑독하게 단련되어 있는 듯한 베이커 양이라 해도 이 다섯 번째 손님의 날카롭고 집요한 금속성소리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 이 상황이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내 본능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마구간에 대한 이야기는—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지만—다

시 언급되지 않았다. 톰과 베이커 양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완벽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서 있는 듯이, 약간의 거리를 둔 채 황혼 속을 걸어 서재로 돌아갔다. 그동안 나는 흥미로운 척, 약간의 귀가 어두운 척 행동하며 데이지를 따라 길게 이어진 베란다를 돌아 집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질은 어둠 속에 놓여 있는 버들가지를 엮어서 만든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느껴보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벨벳 같은 어스름 쪽으로 옮겨가 부드러운 땅거미를 응시했다. 격렬한 감정들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음을 본 나는 그녀를 진정시켜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어린 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오빠,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비록 친척이라곤 하지만,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니까.”

“하긴 그러네요.”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저기, 나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톰과 나는 모든 일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녀에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나는 기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힘없이 그녀의 딸에 대한 주제로 되돌아갔다.

“아마도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밥도 먹고 별짓을 다 하겠지.”

“오, 그럼요.”

그녀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들어봐요, 오빠. 그 애가 태어났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줄
게요. 듣고 싶으세요?”

“그럼, 물론이야.”

“그때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매사예요. 톰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완전
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마취에서 깨어난 나는 곧바로 간호
사에게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죠. 그녀는 내게 딸이라고
말해주었고, 나는 고개를 돌린 채 흐느꼈어요. ‘괜찮아.’ 라고 나
는 말했죠. ‘딸이라서 다행이야. 이 아이가 어리석기를 바라야겠
지.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그래야 하
니까. 아름답고 나약한 바보 말이야. 그렇게 혼자서 나 자신을 위
로했어요.’”

“어째서 내가 모든 일을 끔찍하게 느끼는지 알겠죠.”

그녀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도요.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요. 나는 안 가본 데가 없고, 못 본 것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섬광이 번뜩였고 단호한 몸짓은 마치 톰을 보는
듯싶었다. 그녀가 오싹한 조롱조의 웃음을 터트렸다.

“뺨고 뺨은 여자죠. 맙소사, 난 뺨아빠진 여자예요!”

한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푹 끊어졌고, 내 주의력과 믿음을 사로
잡고 있던 힘이 중단되자, 나는 그녀가 했던 말들이 진실이 아닌
것 같다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마치 오늘 저녁 시간 전부가

내게서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술책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음 애기를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이내 귀여운 표정에 능글맞은 미소를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톰과 자신이 꽤 유명한 비밀 단체에서의 회원임을 암시하듯이 말이다.

집 안에 들어서자, 진홍색 방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톰과 베이커 양이 긴 소파의 양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톰에게 큰 소리로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지를 읽어주고 있었다. 속삭이듯 억양이 없는 단어들이 매끄러운 어조로 이어졌다. 램프의 불빛은 그의 부츠를 반짝거리게 비추며 그녀의 가을의 낙엽을 연상시키는 노란 머리카락을 빛바래게 하였고, 그녀가 매끄러운 팔의 근육들을 움직여 잡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팔을 들어 올린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다음 호에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탁자 위로 잡지를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침착하지 못하게 무릎을 들썩거리더니 몸을 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0시예요.”

천장 위의 시계를 확인한 듯한 단호한 어조로 그녀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착한 아이는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죠.”

“조던은 내일 경기가 있어요. 웨스트체스터(뉴욕 시 북쪽에 있는 교

외.)에서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아, 당신이 조던 베이커 양이군요.”

왜 그녀의 얼굴이 낯익어 보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쾌활하고 깔보는 듯한 표정은 로토그라비아 잡지에 실린 애슈빌(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쪽 그레이트스모키 산맥 근처에 있는 휴양지.)과 핫스프링스(미국 아칸소 주에 있는 휴양지.) 그리고 팜비치(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휴양지.)에서의 그녀의 선수 활동을 찍은 사진들을 통해 많이 보았던 것이었다. 그녀에 대한 몇 가지 악의 어린, 불쾌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잘 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8시에 깨워줘요.”

“깨워서 일어나면 깨우지.”

“일어날게요. 잘 자요, 캐러웨이 씨. 또 만나죠.”

“물론 그렇게 될 거야.”

데이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은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중매를 설 생각이예요. 그러니 종종 이곳에 들러요, 오빠. 내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게요. 왜, 있잖아요. 실수인 척 두 사람을 옷장에 가둬 놓는 다거나, 두 사람을 보트에 태워 바다로 띄워 보낸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일들…….”

“잘 자요.”

베이커 양이 계단에서 소리쳤다.

“난 아무런 말도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괜찮은 여자야.”

잠시 후 톰이 말했다.

“저 여자를 이렇게 밖으로 내둘러서는 안 되는 건데.”

“누가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데이지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가족들 말이야.”

“가족이라곤 천 살쯤은 더 먹은 숙모님 한 분뿐이에요. 게다가 이제부터 오빠가 그녀를 돌봐 줄 거예요. 그렇죠, 오빠? 그녀는 이번 여름 주말은 대부분 이곳에서 보낼 거예요. 가정이 그녀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지와 톰은 잠시 아무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뉴욕 출신인가?”

내가 재빨리 물었다.

“루이빌(켄터키 주 북부 오키아오 강가에 있는 도시.) 출신이에요. 우리는 순수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함께 보냈죠. 우리의 아름답고 순수했던…….”

“데이지, 당신이 베란다에서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한 데?”

갑자기 톰이 요구하듯 물었다.

“내가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북유럽 인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어요. 얼떨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자네가 무슨 말을 들었든 전부 끝이듣지는 말게나, 너.”

그가 내게 충고했다.

나는 가벼운 어조로 아무런 말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고, 몇 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들은 나와 함께 현관으로 나와 밝은 사각형의 불빛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내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데이지가 명령하듯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잠깐만요. 뭔가를 묻는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듣자하니 서부에서 누군가와 약혼했다면서요.”

“맞아, 그랬지.”

툼이 친절하게 덧붙였다.

“자네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건 헛소문이야. 난 그럴 형편이 못 되는걸.”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걸요.”

놀랍게도 다시 피어오르는 꽃처럼 변한 데이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세 사람이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사실일 게 분명해요.”

물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난 약혼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었다. 사실 교회에서 결혼 예고(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계속 세 번 일요일마다 예고해 그 결혼에 대한 이의를 묻는 관습.)를 했다는 소문이 내가 동부로 이사한 이유 중 하나였다. 소문 때문에 옛 친구와의 교제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해서 결혼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친절한 관심이 다소 나를 감동시켰고, 그래서인지 그들이 다가갈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도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약간의 당혹스러움과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데이지가 지금 당장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집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했다. 틈에 대해서는, '뉴욕에 여자가 있대요.' 라는 속삭임보다 그가 한 권의 책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져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마치 완강한 육체적 자기 자만도 더 이상은 그의 독단적인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그를 진부한 생각 따위에 흥미를 느끼고 손을 내밀게 부추기고 있었다.

간선도로 옆 술집 지붕 위에, 그리고 붉은색의 새 연료 펌프가 환한 불빛 아래 자리 잡은 길가 주유소 앞에는 이미 여름이 깊어 있었다. 웨스트에그에 있는 내 집에 도착한 나는 차를 차고에 집어넣은 뒤 잠시 앞뜰의 버려져 있는 제초기 위에 앉았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대지 위에는 삶의 충만함을 알리듯 개구리들이 풍요롭게 울어대었고, 그렇게 시끄럽게 부는 바람은 나뭇가지를 때려 상록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에 어른거리는 것이 눈에 띄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고, 문득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150미터 떨어진 이웃 저택의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형체가 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은 채 은빛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별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느긋한 움직임과 두 발을 잔디 위에 올려놓은 단호한 자세는 그가 바로 개츠비 본인임을 말해주었고, 그는 마치 이 주변의 하늘 중 자신이 차지할 몫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려는 듯 밖으로 나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볼 작정이었다. 저녁식사 때 베이커 양이 그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것으로 서로를 소개하기에 충분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불현듯 그에게서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듯한 갑작스러운 암시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갑자기 이상한 자세로 어두운 물가를 향해 두 손을 펼쳤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가 떨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멀리 떨어진 선착장의 끝처럼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녹색 불빛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개츠비를 보기 위해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사라져 버린 뒤였고 나는 불안정한 어둠 속에 다시 혼자가 되었다.